

고부랑 할머니

최준영 작곡
홍익영 작사



고부랑 땡땡 할머니는
저녁에 침고서 어디 가나



고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술탕을 주꾸러 가신답니다

고부랑 땡땡 할머니는



저녁으로 어디까지 돌아 보나
고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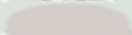
술탕을 먹고서 부신답니다

고부랑 할머니

최준영 최준
홍기영 박서



고부랑 땡땡 할머니는
저렇게 침고서 버티고 계시



고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출발을 추루러 가신답니다

고부랑 땡땡 할머니는



저녁 먹고 버티고서 출차 하시
고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출발을 뛰고서 부신답니다

